



REPORT 남북관계 개선 촉매제 '태권도', 평창에서도 한몫

무주 WTF태권도선수권의 환호성 이번 올림픽에서도 울려 퍼지리라

ITF 시범단, 올림픽 기간 방한

북한의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된 가운데 민족 고유의 무술인 태권도가 화해무드 조성에 일조한다.

남북은 지난 17일 판문점 평화의집에서 평창올림픽 북측 대표단 파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회담을 열고 개막식 공동 입장을 골자로 한 11개 항의 합의 내용을 담은 공동보도문을 채택했다.

공동보도문에는 북측이 30여명의 태권도 시범단을 파견하며, 평창과 서울에서 시범 공연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시범공연 일정은 계속 협의해 나가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북측 태권도 시범단은 북한 주도로 발전해 온 국제

태권도연맹(ITF) 시범단이 될 전망이다. 지난해 6월 '2017 세계태권도연맹(WTF) 무주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기간 방한한 ITF시범단이 7개월 만에 다시 우리나라를 찾게 된다.

당시 북한 체육계의 거물인 장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과 이용선 ITF 총재를 비롯해 36명으로 구성된 시범단이 김포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ITF 시범단은 8박9일 일정으로 무주, 서울, 전주 등지에서 4차례 공연하며 뿌리가 깊음을 재확인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남북 체육교류는 점에서 국내는 물론 국제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ITF 시범단 방한 기간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도 한국을 찾아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하고,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평창올림픽 기간 방한하는 북한 태권도시범단은 북측 민족올림픽위원회 대표단, 응원단 등과 함께 다음달 7일 경의선 육로를 통해 한국으로 올 예정이다. ITF 시범단이 평창과 서울에서 공연하면 세 번째

다. 지난해 6월 방한에 앞서 10년 전인 2007년 4월 3박4일 일정으로 방한, 춘천과 서울에서 두 차례 시범 공연을 했다.

세계 태권도는 우리가 주도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 북측 주도의 ITF로 양분돼 발전했다.

WT가 IOC의 인정을 받는 국제경기연맹으로 발전한 반면, ITF는 세가 약해지면서 북한 중심의 경기단체라는 인식이 자리했다.

그러나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태권도 발전과 보급에 앞장서는 한편, 남북 긴장 관계에서도 꾸준히 교류의 끈을 놓지 않았다.

2014년 중국 난징 유스올림픽에서는 두 기관이 바흐 IOC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상호 인정과 존중, 다국적 시범단 구성 등을 약속한 합의의정서를 채택하기도 했다.

평창 동계올림픽 때도 ITF 시범단과 WT 시범단은 태권도로 남북이 하나되는 모습을 연출하며, 남북 관계 개선에 촉매제 노릇을 할 것으로 보인다. /뉴시스

◀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식이 열린 지난해 6월 24일 오후 무주군 태권도원 T1경기장에서 북한 태권도(ITF) 시범단이 공연을 하고 있다.

평창 남녀 아이스하키 대표팀 확정... 여자팀은 변수

남 골라 3명 등 총 25명 결정 4차례 평가전 뒤 예선 돌입

女 23명 우선 정해 IOC 회의따라 일정·엔트리 추가 가능성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녀 아이스하키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오전 충북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 빙상경기훈련관을 방문해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훈련 중인 남녀 아이스하키 선수단 격려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출전하는 남녀 아이스하키 대표팀 명단이 확정됐다.

백지선 남자 아이스하키 대표팀 감독은 18일 오전 평창 올림픽 출전 선수 25명을 결정했다. 골리 3명과 디펜스 8, 포워드 14명으로 구성된 남자 아이스하키 올림픽 대표팀은 19일부터 21일까지 제주도에서 결속력을 높이기 위한 오리엔테이션 캠프를 연 후 22일 진천선수촌에서 올림픽을 겨냥한 마지막 탐금질에 돌입한다.

30일까지 진천선수촌에서 전력을 가다듬는 백지선호는 다음달 1일 인천으로 이동해 네 차례 평가전을 통해 실전 감각을 높인 후 올림픽 본선을 위한 준비를 마친다.

첫 평가전은 3일 오후 7시 인천선학링크에서 카자흐스탄 대표팀을 상대로 치러진다. 5일 오후 9시10분 같은 장소에서 카자흐스탄과 2차전을 벌인다. 8일 오후 7시30

분 인천선학링크에서 올림픽 본선 B조에 편성된 슬로베니아와 맞붙는다.

10일 오후 2시에는 장소를 안양실내링크로 옮겨 평창 올림픽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는 러시아 올림픽 대표팀과 일전으로 스파링을 마무리한다.

올림픽 본선 A조에 속한 남자 대표팀은 15일 오후 9시10분 강호 체코와 본선 첫

경기를 치른다. 17일 오후 4시40분 스위스, 18일 오후 9시10분 캐나다(이상 강릉하키센터)와 격돌한다.

총 12개 팀이 출전하는 평창 올림픽 남자 아이스하키는 3개 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후 상위 4개 팀이 8강에 직행한다. 나머지 8개 팀은 조별리그 성적을 토대로 대진표를 짜 단판 플레이오프 승자

가 8강에 합류한다. 이후 녹다운 토너먼트로 메달을 가린다.

남북 단일팀 구성으로 논란의 중심에 있는 세라 머레이 감독이 이끄는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도 18일 오전 23명의 평창 올림픽 본선 출전 선수를 우선 정했다.

여자 아이스하키 대표팀은 다음달 4일 오후 7시 인천선학링크에서 스웨덴을 상대로 마지막 평가전을 치른 후 5일 올림픽 선수촌에 입소한다.

스위스, 스웨덴, 일본과 조별리그 B조에 속한 여자 대표팀은 10일 오후 9시10분 스위스와 첫 경기를 한다. 12일 오후 9시10분 스웨덴, 13일 오후 4시40분에는 라이벌 일본(이상 관동하키센터)과 맞붙는다.

여자 대표팀의 일정은 20일 스위스 로잔에서 열리는 남북 단일팀 관련 회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8개국이 출전하는 여자 아이스하키는 실력에 따라 A조(상위그룹=미국, 캐나다, 핀란드, 러시아)와 B조(하위그룹=스웨덴, 스위스, 일본, 한국)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후 4강 진출 플레이오프(A조 3위-B조 2위, A조 4위-B조 1위)를 기점으로 승자조와 패자조로 나뉘어 순위 결정전을 치른다. /뉴시스

남원시청 복싱팀, 전국체전 입상 목표 전지훈련

남원시청 직장운동경기부 복싱팀이 작년에 이어 올 한해도 전국대회 및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상위입상을 목표로 동계 전지훈련에 돌입했다. 남원시청 복싱팀의 강일성 감독과 선수 6명은 이달 15일부터 한달간 청양, 충주, 대전, 남해 등 각지를 돌면서 전지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전지훈련은 남원시의 명을 걸고 참가할 제99회 전국체육대회의 복싱 각 체급별 1위를 목표로 다양한 환경에 적응하고 기본체력과 정신력 강화 및 선수 개개인의 특성에 맞춘 주특기 훈련을 통해 선수의 기량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시된다.

작년, 남원시청 복싱팀은 제98회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전국복싱대회에서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7개를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특히 2017년에 신규영입한 김정우 선수가 그중 금메달 4개를 목에 거는 우수한 성적으로 보여주었다.

시 관계자는 "2017년 2억7천만원을 들여 복싱체육관을 리모델링하여 합숙소를 제공하고, 올해 우수한 기량을 가진 선수 3명(89 최상돈, 92 박남형, 96 김재화)을 신규영입하는 등 체계적인 훈련과 보상으로 운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2017년보다 더 훌륭한 성과를 거둘 수 있게 하여 시민들에게 남원시의 자긍심을 높여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유영철 기자

구독·광고문의 288-9700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

호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